

오피니언

테마칼럼

책과 세상

신재생에너지

문화 상상력

도시와 인간

넓은 건축물 부수기만 할 겁니까



유병권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다하게 마련이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 말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 중 지은 지 20여년이 지난 것은 60%에 이른다. 노후주택은 이보다 높은 70% 수준이고, 주택 신축이 많지 않은 전남지역은 그 비중이 더 높을 게 뻔하다. 그러한 건축물은 대개 벽돌이나 철근콘크리트로 지었던 것인데 콘크리트의 수명이 100년 이상 간다지만 적절한 유지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수명은 그만큼 단축된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노후화되면 대개 상하수도관이나 전선 같은 설비의 성능이 저하된다. 에너지효율도 낮아진다. 건축물은 외관이 가진 분위기에 따라 지역 이미지도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한다. 근래 들어 도시외곽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구도심에 대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고 건축물관리마저 소홀해져서 상권도 시들해지고 주민들도 고통화되면서 지역사회마저 노후화해 가고 있다. 선진국도 그러한 현상을 경험했던지 많은 나라들이 도시재생을 의치고 있다. 70년대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저비용·고효율의 압축형 도시구조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이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너지 절약형 녹색도시를 비롯한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산업사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건강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보자는 생각에서 걷기 좋고 어울려 살기 좋은 도시마을을 만들어보자는 운동도 번지고 있다. 유럽은 도시르네상스, 미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가꾸려는 노력을 아끼고 다듬고 가꾸어가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유럽은 도시르네상스, 미국과 일본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고 가꾸려는 노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도시의 핵심적 구

성요소인 건축물의 재생도 그 중심에 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시대조류를 반영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건축물과 도시를 아끼고 다듬고 가꾸어가는 몇 가지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우선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사를 하게 되면 집안 구성구석에 있는 아이들의 낙서 같은 삶의 흔적을 버려야 하고, 이웃과 맺었던 소중한 인연도 끊어진다. 그렇게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는 곳(居處)'이 아닌 '사는 것(買物)'으로 여길 것이다. 세대간 이웃 간의 소통과 사교공간으로서의 집이 갖는 가치를 다시 새겨보았으면 좋겠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여저당제도의 경우에도 소득이 없는 노인의 연금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쓰이고 있다. 함께 어울려 사는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둘째,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정부의 도움을 기대하기 전에 집주인의 노력이 앞서야 한다.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지원이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한 정책은 일의 속도를 빠르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간, 계층 간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도덕적 해이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현행 제도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나 경관보다 성능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는 것을 안다. 요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건전한 건축문화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셋째, 무조건 부수버릴 일만은 아니다. 좋은 건축물이나 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장소 가치를 높여서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의 부가가치를 가져오기도 한다. 개발 압력이 약한 지방도시일수록 공간적 복지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개발보다 지역사회 주도로 보호 가치가 있는 자산을 찾아서 테마있는 재생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광주의 '푸른길공원'은 많은 긍정적 시사점을 준다. '공유재의 비극'이라는 가설이 있다. 양 아흔 아홉 마리가 먹기에 적합한 목초지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한 마리를 더 방목하면 전체 목초지가 쓸모없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개인적으로는 합리적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건축물을 쉽게 헐어도 되고 값나갈 때 팔고 떠나면 된다. 주차장이나 일조권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역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할 행복추진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도시마을을 이루어 터잡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의 생활공간을 가꾸어 나가려는 합의의도가 중요하다. 그것이 인구감소와 산업침체로 가뜰스나 힘든 지방도시가 사회적 자본형성을 통해 힘을 기르는 길이다.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이러다 지방공약은 '공수표' 되는 것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결국 백지화됐다. 동남권 신공항 공약은 결국 영남권을 두 조 각내는 등 국론 분열이라는 심각한 후유증만 남긴 채 '공수표'로 끝났음을 한 것이다.

우리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보면서 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MB정부 들어 대부분의 지방공약 및 대형 국책사업은 경제성 논리에 밀려 브레이크가 걸렸다. 동남권 신공항을 비롯한 행정도시, 과학비즈니스 벨트 건설 등이 그렇다.

광주·전남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시의 경우 제17대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12개 과제 가운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전남도 역시 14개 과제 가운데 핵심사업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J프로젝트는 정부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물론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 공약 남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만 국익(國益)이라는 큰 틀에서 취소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이고 진솔한 설명으로 국민을 이해시키는 절차가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공약인데, 국책이든 지방과 관련된 사업은 경제성 운운하며 사전조건 채우기 결판나는 점이다. 경제논리를 따질 경우 지방에 유치된 국책사업은 단 1건도 없다.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지방은 아예 경쟁이 되지 않는다. 이번 신공항 백지화가 국익보다는 수도권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국가적 최우선 과제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방지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균형이 깨지면 무너지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골칫거리인 경제성을 내세우며 국토균형의 발목을 잡는 기득권자의 왜곡된 주장에 더 이상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다단계 수법까지 동원한 신종 보험사기단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고의로 무릎 관절 수술 등을 하게 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속자만 25명에 달하며 사기 금액은 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단일 사건으로 국내 최대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은 보험 브로커와 병원 의사, 급전이 필요한 사채 채무자들이 한 묶음이 돼 보험금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금을 받기 위해 벌인 사기극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의 꾀에 넘어간 채무자들이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한 통속이 된 의사들에게 미정한 관절 등을 수술 받고 거액의 보험금을, 병원 측은 요양급여금을 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사채업자, 유흥업소 업주들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업소 여종업원, 도박자금 채무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다단계 방법까지 동원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가짜환자'들은 또 장기 입원하면서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해왔고,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신종 보험사기단 9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구속자만 25명에 달하며 사기 금액은 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기 단일 사건으로 국내 최대 구속자가 나온 것이다.

이름이 '풍선 효과'로 인해 사기를 당한 만큼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요양급여금 역시 건강보험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요인되고, 그 부담을 국민의 혈세나 가입자가 진다. 집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국은 보험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보험료와 요양급여 등 제도 개선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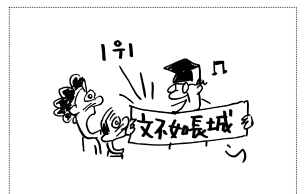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황금동에 반이비인후과라는 병원이 있다. 무등극장에서 불패 대각선 건너편에 자리잡고 있는 이 병원은 광주에서 웬만큼 잘나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알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반상진 원장은 우리 나이로 80세지만 여전히 정시 출근해 진료를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병원 로비에 비치된 책자가 여는 병원과 전하 다르다는 점이다.

인제양성에 매진한 결과, 장성고를 전국적인 명문고로 우뚝 세웠다. 장성고는 2005년 수능성적이 공개된 이후 줄곧 상위 20위권을 벗어나지 않았고 14년 연속 졸업생 전원을 4년제 대학 입학이라는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도 장성군이 수능 4개 영역 모두에서 전국 시·군·구 1위를 차지한 것이 순전히 장성고 덕분이다. 장성고는 최

장성고



여성잡지사 월간지 대신 반원장의 에세이집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에세이집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반원장의 생각과 교육 철학 등을 알게 된다.

장성읍에서 백양사 방향으로 가다 오른쪽에 보면 장성고가 있다.

이 학교의 설립자가 바로 반상진 원장이다. 지난 1974년 학교법인 '송과학원'을 설립해 자신이 중·고교 시절을 보낸 고향에 고창남중을 설립하고 1984년 고창고교를 장성고를 세웠다. 장성고 교장은 반원장의 동생인 반옥진씨가 1997년부터 맡아오고 있다. 반 교장은 형님의 건학이념을 이어받아

상위 학생들의 분포도를 나타내는 1·2등급 비율에서도 언어와 수리 'L' 영역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수업에 선택해 듣는 선택수업제와 교실명제, 수준별 보충수업 등이 1등 비결로 꼽힌다.

예부터 장성은 '문'이다. 이 학교의 설립자가 바로 반상진 원장이다. 지난 1974년 학교법인 '송과학원'을 설립해 자신이 중·고교 시절을 보낸 고향에 고창남중을 설립하고 1984년 고창고교를 장성고를 세웠다. 장성고 교장은 반원장의 동생인 반옥진씨가 1997년부터 맡아오고 있다. 반 교장은 형님의 건학이념을 이어받아

음부즈맨 칼럼



이철갑

광주일보는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신문이다. 지역에 여러 다양한 언론매체들이 있어서 매일매일 발생하는 사안들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하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광주일보 보도를 호남지역 여론의 바로미터로 여긴다고 한다. 그래서 광주일보가 단순한 지역언론 전달자 역할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여론을 선도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하는 신문이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 광주일보도 이러한 바람들을 충분히 자각하고 있어서 깊이 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발생했는지, 노사 간에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또 해결책은 없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지역민들은 무척 궁금해 하지만 알 길이 없다. '금호타이어를 시민기업이라 생각'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광주시장과 시의회의장이 나서도 잘 안 풀리는 문제라면, 광주일보가 나서서 심층보도를 하면 어떨까 싶다.

4월 27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 보궐 보궐선거가 역대정권의 정책에 대한 일종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

금호타이어 분규 더 깊숙한 취재를

필자는 광주일보가 지역여론을 선도해 나가기에 바라며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지난 3월 11일 일본 대지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피해 공포가 크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영광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폭발이 더욱 큰 공포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3월 15일자 4면에 처음으로 영광주민들 걱정을 보도하고, 18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영광원전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원전사고 대책이 부족하다'는 1면 톱기사로 내보낸 이후 모두가 문제인지 심층적인 해설이 사나 추가 보도가 없다. 우리 지역에 원자력공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고, 영광 원전 주변 건강영향 평가를 했던 전문가들도 있어서 즉시 발생 가능한 문제와 대책에 관해 여론을 만들어 내야 했다. 덧붙여 원자력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내의 시범사업이나 동향도 함께 취재하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금호타이어 파업 관련 기사는 3월 26일, 27일, 28일 3일 연속 1면 톱기사로 다루었고, 27일에는 사실, 28일에는 인내한 전 광주교점장의 기고도 실었다. 지역경제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강준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의장까지 동원시켜주겠다는 말도 들린다. 그러나 보도기사만 보면 노조의 요구가 무엇이며, 왜 이러한 문제가

고 있고, 내년에 치러질 19대 국회의원 및 18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으로 생각되기에 아권연대와 관련해 민주당이 순천지역에 공천할 것인가 여부에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다. 또 화순군수보궐선거는 어떤 사람이 진정 화순군민을 위한 단체장으로 적임인지를 판가름하는 듯하다. 그러나 화순군수는 '형제부 부 군수집단 4번째 승부'라는 삼류소설 같은 식의 반복보도로 화순군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선거 쟁점인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순천지역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광주일보의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것 같다. 앞으로 정치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에서 어떤 방향이 우리들 모두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좋은 방안인지 지역민들 바람을 광주일보가 선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슈인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돋보였는데 이를 계속 살려 나갔으면 좋겠다. 3월 23일 '이동만 하고 가꾸지 않는 광주 푸른길 공원'에 대한 기사가 그렇다. 한편 3월 7일, 25일 나주혁신도시 진흥 상황에 대해 연이은 보도처럼 과학벨트를 광주, 대전, 대구 3개 지역에 조성하자는 제안의 논거를 더 상세하게 취재하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F1 대회뿐만 아니라 여수엑스포 및 광주 U대회 진행 상황도 지역민들은 궁금해 한다. <조선대 의대 교수·광주일보 독자위원>

중고칼럼



이원재

죄 없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형에 처하려는 결론적인 판결을 놓고 그것을 짜 맞추려 하니 얼마나 거짓이 동원되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회유와 권력자들의 만행이 필요했을까?

2000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였다. 로마의 황제는 주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여 분봉 왕들을 두고 나라들을 다스리며 통치를 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생명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터라 그에게 비유를 맞추며 온갖 아첨을 했다. 황제의 명은 곧 법이요, 최고의 권력자였기 때문

래도 선일 제자였던 베드로는 한때 몽니도 부렸다. 큰 소리로 장담도 했다. 내가 있지 않으나, 예수를 잡으러온 군중 중의 한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끼자 모른다고 부인했고 맹세까지 했으며 급기야는 저주까지 했다. 유대법상 새벽에나 밤에야 재판할 수 없으며 특히 안식일 전날에는 재판을 금했다. 그러나 공회는 목요일 밤에 가야바에게 심문을 받게 했고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언도를 내리고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다. 아무

산헤드린 공회의 불법 재판

이다. 당시 최고의 법 기관은 산헤드린 공회였다. 공회는 오늘날 국회라고도 할 수 있다.

공회의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백성들이 뽑은 장로들로 구성되어있다. 당시 막강한 권력과 부귀를 누리는 부류였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다.

성전을 다스리고 법을 집행하고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집행할 책임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장차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들이다. 그 약속대로 땅위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 메시아는 인류의 타락을 원상태로 되돌리는 막강한 사명을 가진 분이 다. 그분이 오신 것이다.

오셔서 자신이 본인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비리와 부정과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을 하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자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어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버릴 공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인간의 도사는 자신을 폐망에 이르게 한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하나인 가롯유다는 선생을 돈 받고 팔았으며 다른 제자들도 도망을 쳤다. 그

리 죄목을 찾으려 해도 죄가 없으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불러 모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와서 성전은 할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고 증언을 하자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이다. 성전을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불가침이었다. 감히 성전에 올라 갈 수도 없는 그들에게 성전을 할면 다시 짓겠다는 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천인공모 할 사항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다가 동쪽의 벽에 가면 무너진 성전 한쪽 벽에 머리를 짚으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불법이 성행한 이때 우리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자. 과거자 지금이나 이런 현상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나아졌다고 할 수 없지 않은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시간이 해결한다. 당장 눈앞에서는 승리한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진실이 반드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있다.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패심해도 느긋하게 기다리자.

정의가 이긴다. 죄 없는 예수를 그들이 죽였으나 결국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저들은 징계를 받았다. 진리가 이긴다. <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제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